

사설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애도하며

역장이 무너진다는 표현도 부족하다. 진종일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떨리는 마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신문을 보기도 두렵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싫다.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볼 수가 없다. 다만 신불(神佛)의 가혹함을 탓할 뿐이다. 남이 이러할 진데 참사와 직결되어 있는 대구시민들과 유족들의 슬픔은 오죽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다. 크게 보면 자신의 못남을 남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소아병적 윤리의식이 자아낸 결과다. 작게는 나만 살자고 도망친 기관사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한 지하철공사의 안전불감증,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중앙통제소 직원, 전원부터 차단하고

도망친 관계자 등의 총체적인 직업의식의 해이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하루 650만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안전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면서 그동안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지하철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사고가 터진 다음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관료들이나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열중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체에 국가는 지하철의 전체적인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상태라면 지하철 승객들은 매일 죽을 티널을 왕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왕이라는 의식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뇌리를 점령해야 한다. 재삼 사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성보는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성보 문화재보존관리에 때늦었지만 기본 소식이 전해졌다. 오대산 월정사 다층석탑 원위치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관련 자료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매장문화재는 국가 귀속되는 것을 피하고 당시의 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월출산 도갑사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법에 따라 국가귀속 조치를 취하자 사찰측이 강력하게 반발, 끈질긴 노력 끝에 사찰 전시관에 전시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찰에서 도난당한 성보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 이유로 해당 사찰로 돌려 보내지지 못한 채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사리(舍利)마저 단순하게 유물로 다루어져 창고에 갇혀 있다.

국보 제34호인 창녕 술정리 동탑에

서 나온 유리사리병 등 유물 14점을 1969년에 덕수궁미술관에서 인수받고도 38년간 유물을 소장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문화연대가 술정리 동탑에서 나온 유물의 행방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자 정분서보관서에서 관련서류를 찾은 문화재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제시하자 부랴부랴 하루만에 유물창고에서 찾아냈다. 이는 국가가 모든 출토유물을 관리하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문화재 발굴이 급증하면서 향후 매년 출토유물이 3~5만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찰에서 출토된 유물은 종단과 사찰에서 소유권을 갖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만큼 문화재 당국의 문화재 소유 및 보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행자교육·승가재교육 강화

조계종 교육원 교구본사 교무국장단회의서 내용·일정 확정

조계종의 행자교육과 스님들의 재교육이 강화된다. 또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증설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17일 2003년도 제1차 교구본사 교무국장단 회의의를 열고 행자교육원 입교 전 지방권역별 행사사전교육 실시 등 행자교육 및 승가 재교육 내용과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8월 시행되는 제25기 행자교육원부터는 '권역별 행사교육'을 마쳐야만 입교할 수 있게 된다. 6개월에서 1년간의 개별 사찰 행자교육과 1개월여의 본사 행자교육을 마친 뒤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수

권역별 교육후 행자교육원 입교자격

증급지도자과정 연수 4월12일부터

있었던 3단계 과정에서 한 단계가 더 늘어난 것이다.

권역별 행사교육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인 습의조차 배우지 못하고 행자교육원에 입교하는 행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통해 행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권역별 행사교육은 직할·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해당 권역의 1개 본사에서 최소 3박4일간 실시되며, 25기 행자교육원 대상자의 권역별 행사교육은 7월 한달 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기본 습의, 예불 등 예식습의, 기초교리, 사미심계, 운력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원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승랍 5년차 스님들을 대상으로 증급 지도자과정 연수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균 승랍 10년차 이상

의 본말사 주지연수교육과 승랍 20년차 이상의 고급 지도자과정 연수, 25년차 이상의 중진 지도자과정 연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재교육이 가능해지면서 승가 재교육 체계가 보다 강화된다.

첫 증급 지도자과정 연수는 오는 4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며, 수행집검, 수행인의 자세 및 지도자상 체득, 포교, 복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원은 또 3급 승가고시 대상자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가사회복지양성학교나 성보문화교육기관 등 특수교육기관과 학림이나 율원 등의 전문교육기관,

서울불교전문강당과 같은 교육원 개설기관의 증·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김태복장군 명예회복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교구본사 주지회의

조계종은 17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2003년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하고 2002년도 사업성과와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한국불교성역화 불사모연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가한 21개 본사 주지들은 김태복 장군 문제와 관련, 불사금을 뇌물로 간주하는 판결이 날 경우 군불교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2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구본사 주지들은 또 은해사 법타스님이 제안한 북한방문에 대해 법타스님에게 그 방법과 시기 등을 위임했다. 한명우 기자

신도법복 통일 싸고 논란

의제실무연 황토색수련복 사용 추진

사찰·신도회 “비효율적인 발상” 반발

신도 법복을 통일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며 합리적인 일일까.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의 의장 중진가 19일 회의를 갖고 신도법복 통일을 추진키로 하자 사찰과 신도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

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제실무연구회는 △현재 대다수의 신도가 법복으로 회색 바지와 저고리를 착용함에 따라 승가복식과 구분이 곤란하고 △승가와 동일한 복식을 착용함에 따라 승

가의 위계질서 확립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법회 및 수련회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통일된 수련복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신도법복 통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제실무연구회는 조계사나 포교원이 사용하고 있는 황토색의 수련복을 그대로 신도법복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도법복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사찰과 신도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7사찰의 한 관계자는 “신도법복을 통일하자는 목적이 신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냐”며 “이런 비효율적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신도회와 경찰불교회의 한 관계자도 “불자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법복통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종단차원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선운사 새주지 범여스님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새 주지에 범여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는 19일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1명 전원회의로 만장일치로 범여스님을 새 주지로 추대했다.

1949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범여스님은 1963년 선운사에서 상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6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4년 내장사 주지, 2001년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을 거쳐 현재 총무원 재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지 임기는 4월5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재무부장은 직은 자연히 사퇴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의 27일 개최

31대 총무원장 인준·원로회의의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도원)는 27일 오전 10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31대 총무원장 인준 건 및 원로회의의 원 선출의 건 등을 다룬다.

조계종 종헌 제28조에는 원로회의가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을 행사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재선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전례는 없었다.

원로의원 후보에는 지난 155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혜정(법주사) 지혜(범어사) 덕진(통도사) 스님이 후보에 올라 있다. 원로의원 정원은 17~25명

이며, 현재는 18명이다.

한명우 기자

고영섭·지창규·신성현씨 동국대 교수로 신규임용

동국대학원은 18일 제 190회 이사회를 열고 불교대 고영섭(한국불교사) 지창규(천태학) 신성현(계율학) 씨를 비롯 총 28명의 동국대 신규 교수 임용의 건을 승인했다. 3월 1일자로 임명되는 신규교수 28명은 서울 12명, 경주캠퍼스 16명이다. 또한 총 예산 3120여억원중 병원 예산을 보류키로 하고, 99억원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교의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쇄인 : 김규석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